

2000년대를 향한 한·미 방산협력 방향

● 李 愚 軾 / 국방부 제2차관보

존경 하는 美 국방부 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님, 그리고 美 방위준비협회장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님, 그리고 제4차 한·미 방산회의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2000년대를 향한 한·미 방산협력방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1950년대초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군사·경제분야에서 그 기반을 굳건히 다져 왔으며, 한반도의 방위 역시 1970년대까지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후 70년대 중반에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가 중단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협력하에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방위산업 역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를 맞는 현 단계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투기사업(KFP)을 추진할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한국이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위산업을 현수준까지 발전시킬수 있었던 것은 미

국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동의 80년대를 보내고 희망찬 90년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한·미 방산회의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본인은 2000년대를 향한 한·미 방산협력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첫째,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둘째, 정확한 미래 예측

셋째, 소요에 대한 확신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방위산업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막대한 투자재원의 염출 문제, 전문 기술인력의 수급문제, 수요의 제한 등의 요인때문에 사업성공의 확실성, 적정수준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만 방위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방위산업 발전추세는—

첫째, 재래식 기본병기분야의 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반면, 고도정밀 및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체계사업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둘째, 이에 따라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방위산업의 협업화, 전

문화, 지역화가 요구되고 있고,

셋째, 전시에 적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해 평시에 자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제반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자유진영의 방위산업분야는 공산진영과는 달리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몇가지 저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첫째, 내적인 요인으로는 민수산업 우위의 정책고수,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국민적 합의의 결여, 공산진영의 평화공세, NATO와 바르샤바군 전력증강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과당경쟁에 의한 중복투자, 국가간 협력부족 등을 들수 있으며,

둘째, 외적인 요소로서는 국제적인 경제블록화 및 고립주의, 정치분야의 내셔널리즘, 자유진영 국가간에도 장기적인 안목 결여에 의한 협조부족 등을 들수 있으며,

셋째, 방위산업 특성상의 요인으로서는 군사과학기술 이전 회피와 수출(기술제공) 통제 강화 등 자국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극복하면서 한·미 양국이 2000년대를 향해 순조로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몇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미간 선의의 경쟁이 요망됩니다. 토인비 교수의 말에 의하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및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음을 뜻하는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발전도 가속화시킬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이념인 자유무역 즉, 비교우위의 법칙에 따른 국제(한·미) 분업의 과감한 수용입니다. 이는 어떤 한 국가에만 가중되는 부담을 피할수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협력체제 구축에도 공헌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동소요의 창출입니다. 산업생산의 주요목표는 수요의 충족입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속성상 平時, 非需要期時 생산라인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방산의 수요를 한·미 업체간 공동으로 창출한다면, 양국의 공동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건전한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체 수준의 상호협력이 여타 정치 및 경제협력을 선도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항이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될수 있으며, 방산협력을 시발점으로 한 협력이 일반 경제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결국 경제,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적인 방위력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자원의 제약하에서 자국의 방위력을 충분히 확보하자면 경제적인 면을 생각치 않을수 없습니다. 양국간에 장비의 상호 호환성을 감안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서로의 장점을 살린 공동생산, 상호 조달을 통해 양국의 방위력을 경제적으로 구축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방산협력을 통한 방위비 부담 경감입니다. 2차대전이후 아세아 지역에서의 방위는 미국의 커다란 우산밑에서 이루어질수 있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화와 이 지역 방위에 따른 엄청난 자금의 소요는 미국 혼자 힘으로 먼저 착수해야할 분야의 하나가 바로 상호 방산협력을 통한 방위비 부담 경감입니다.

일곱째, 방위산업분야의 상호개방입니다. 방위산업분야의 지나친 폐쇄정책은 양국의 발전에 아무런 이익이 될수 없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상호개발이 향후 양국간 방위산업 발전에 상충요인으로 작용하여, 양국간 방위력 증대를

가속화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미 방산회의가 말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의 통합에 따른 對유럽 경쟁력 유지는 물론,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따른 이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한·미업체간 협력이 더욱 더 절실한 때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삼성 유나이티드, 대우 시코스키, 한벨 헬리콥터 합작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미간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한·미 방산협력회의의 바람직한 역할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태평양지역 협력의 주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양국업체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2000년대의 태평양지역내 방위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양국 업체간의 개방적이고도 구체적인 군사기술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미 공동으로 영토보다 중요한 지역내 시장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간 공동생산사업을 확대하여, 장비의 표준화와 상호 호환성을 높임으로써 평시 업체의 가동율 향상은 물론 유사시 신속한 군수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능한한 한·미간의 방산협력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제반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미 방산협력을 촉진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방산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에 장애가 되는 제반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양국간 진정한 협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존의 한·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한·미 방산분야 협력관계를

더욱더 증진함으로써 태평양 연안국간의 협력증대를 위한 초석을 제공토록 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 및 한·미 방산업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위산업의 위험분산, 경제적인 조달, 전쟁억지력 제고를 위한 지역적인 역할 분담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는 유사시 방산기지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위험에 대해서 타국의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미 방산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술분야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는 공동연구 개발시 기술제공의 원활화를 도모함은 물론 한정된 자원내에서 최대한의 방위력을 증대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호환성의 증대로 전투력을 배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가가 모든 방위분야를 독점할수 없기 때문에 서로간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공존할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경제적인 역할 분담을 제의합니다. 이는 양국의 장점을 상승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 및 수요의 창출로서 양국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할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제 본인의 연설을 마감하면서 한·미 양국 방산의 발전을 위한 양국 업체 및 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하며, 현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2000년대에는 양국간의 균형된 발전으로 자유세계를 보호 발전시킬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본인의 연설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